

오징어 성어기 월선 예방

속초해경,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 개최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어선 무단월선 방지와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동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9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해군 1함대사령부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 등 3개 자치단체 해

양수산과장, 3개 수협조합장, 3개 채낚기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업 중 부주의와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조난사고방지 △어업인의 안보의식 고취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허위 위치보고 금지 △경비세력 배치 및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조업하는 어업인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출·입항시 항해·통신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동해대화회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포항선적 D호(41t, 채낚기어선)가



지난 9일 동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가 열렸다.

선박 클러치고장으로 조류에 떠 밀려 북한 EEZ 해역을 월선해 북측에 피랍된 사례가 있었다. 최광호 기자

어촌계 탐방/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앞 바다낚시터 개발 노력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 현내면 대진어촌계(계장 박복방, 78세)는 36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어업 종사자는 대략 2천여명이다.



박복방 어촌계장

현재 139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연승, 자망, 관리선, 나잠, 정치망, 선외기 등의 어종별 협회가 구성돼 있다.

2007년부터 자율관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어장내 자원조성을 통한 소득증대'라

는 사업목적을 위해 전복 및 해삼종묘 살포를 통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어장관리선 운영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금지기간 설정 운영으로 자원관리와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진 자율관리 공동체는 자율관리 규약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007년도 우수 광역공동체로 선정돼 3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특히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한 연안 해조 숲 보호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지난해 가을

도루묵철에는 사상 최고의 어획량과 어획고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대진어촌계는 앞으로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앞 바다에 바다낚시터를 개발해 어촌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복방 어촌계장은 “바다낚시터가 완공 되면 관광객 유입을 통해 회집 등 지역 상경기 회복과 더불어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어촌계와 어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어촌 현안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사랑의 봉사단 활동 전개

올레 KT 고성지사...삼익아파트 IF시설 구축

올레 KT 고성지사는 지난달 20일 거진에 있는 '하늘땅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전개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은 배추나르기, 책장정리, 환경 개선활동 등을 펼쳤으며 도서상품권 20만원을 지원했다.

올레 KT 고성지사 사랑의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올레KT 고성지사 사랑의 봉사단이 '하늘땅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올레 KT 고성지사는 최근 간성을 삼익아파트 650세대

에 1천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IF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IF(intermediate frequency : 중간주파수)시설이란 위성방송 중간주파수를 활용해 위성채널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옥상에 대형 안테나를 설치해 내선을 통해 여러 세대가 동시에 스카이라이프 시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익아파트는 고성에서 유일하게 접시 안테나 없이 스카이라이프 시청이 가능케 됐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한화케미칼(009830)

3월 이후 일본 지진과 4월 실적 시즌을 발판 삼아 V자 반등 랠리를 펼쳤던 국내 증시가 5월 이후 재차 하락 전환하여 고점 대비 10%가량 큰 폭의 되돌림 조정을 받았다. 최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었지만 이번 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와 퀴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 조정은 6월 중순까지는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6월로 예정된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로 시장은 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모로 최근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즐비한 상태이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 금융 위기 수습을 위해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덕분에 글로벌 증시는 2009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유동성에 의한 상승인지라 주가 등락도 심한 편이다. 우량주는 안정적인 주가 등락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를 무색하게 하

고 있다. 우량주의 주가 등락이 개별주 못지않은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금 시장은 철저한 차별화 장세다. 즉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 것이다. 누구나 매수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결코 주가를 상승시켜 주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메이저의 자금이 집중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기 바란다. 자동차, 화학 등 시장 주도 업종을 보면 최근 지수 폭락 구간에서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화 그룹은 차세대 핵심 성장에 한화케미칼을 집중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인 PVC나 가성소다 생산은 풀가동 체제를 지속하고 있어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독일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동될 때 회사의 태양광 사업 가치도 재무 각될 것으로 보여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므로 기관 수급이 방향타가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